

No. 39
May 31 2016

월 간

극지해소식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북극국가 정책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북극환경 및 생태계
기타

남극 소식
이슈 분석

본 소식지는 비영리 학술활동(과제명: 북극해시대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 연구)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대한 질의나 코멘트,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수** 임진수 부원장(선임연구위원) **책임** 김종덕 미래전략연구본부장(연구위원) **작성** 백인기, 신수환, 김지혜, 김주현, 박지영, 박원지
▶ **연락처** : 신수환 051)797-4764 (shshin@kmi.re.kr)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이사회/국제기구

- 유럽연합의 Mogerini 외교 · 안보정책 의장,
북극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기대 (2016.4.27)

유럽연합(EU)의 외교 및 안보정책 의장인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erini)는 유럽연합이 북극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모게리니 의장은 유럽연합국가의 외교부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심의했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선택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중 하나가 북극해라고 언급함.

모게리니 의장은 북극해에 대한 유럽 정치의 관심은 크게 3가지로, 이는 1) 기후 문제, 지구 온난화 예방과 자연 환경보호, 2) 천연자원과 무역로 같은 북극해의 경제적 이용, 3) 안보 문제라고 함.

아울러 모게리니 의장은 북극해는 3개의 대륙이 만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유럽 연합은 러시아, 미국 그리고 중국과 같이 북극해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파트너들과 건설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임.

(<http://www.arctic-info.ru/news/27-04-2016/es-rasscitivaet-na-rassirenje-sotrydnicestva-s-rf-v-arktike>)

북극국가 정책

러시아

•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극 개발을 위해 AIIB를 통한 중-러 협력 제의 (2016.5.21)

지난 5월 19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소치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쩌리첸(金立群) 행장과 회담을 갖고, AIIB가 시베리아 철도와 북극항로 건설 및 극동지역 경제특구 발전에 적합한 투자모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

한편 중국은 불투명한 세계 경기와 미국의 신보수주의 강화 추세에서 중-러 양국의 해·육상 협력 사업이 세계경제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음.

아울러 중국은 불확실성과 높은 리스크를 지닌 타 국가 투자 사업에 비해 북극항로에 대한 투자는 중국의 정치적, 상업적 이해에 모두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북극지역의 투자에 있어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음.

(<http://www.cnqiang.com/app/appmil/201605/01279664.html>)

•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 국가복지기금을 통한 야말 LNG 프로젝트 지원 건의 (2016.4.20)

러시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는 국가복지기금을 통해 러시아의 북부지방과 극동지역 그리고 시베리아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어줄 대형 프로젝트인 야말 LNG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그는 특히 이러한 지원이 국가복지기금의 자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배분하고 있는 모든 재원을 아주 신중하게 소비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없다면 러시아는 발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총리에 따르면, 야말 LNG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가 재정지원(10-15%), 러시아 은행을 통한 재정지원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의 재정지원이라는 3개의 자금원이 결합된 것임. 러시아 총리는 오직 이 경우에만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전망 또한 밝을 것이며, 이미 야말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액은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북부지역에서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바이칼-아무르 철도프로젝트(BAM), 시베리아횡단 철도 프로젝트(Transsib) 그리고 모스크바 외곽순환로(CCR) 건설과도 연관된다고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아주 복잡하고 어렵지만, 적어도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arctic-info.ru/news/20-04-2016/dmitrii-medvedev-predlozil-podderjat_-amal-spg-cerez-fond-nacional_nogo-blagosostoania)

• 러시아 해군, 북극해를 포함한 해양에 군함과 관련 선박 100대 이상 배치 (2016.4.22)

러시아 해군 제독인 블라디미르 코롤레프(Vladimir Korolev)는 북극해와 해양에 군함과 관련 선박이 100대 이상 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고도화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코롤레프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알현한 자리에서 전 세계가 러시아의 흑해 함대와 카스피 해 분함대의 우주-항공 전투력을 눈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집약적인 전쟁준비와 기술력 혁신, 러시아 해군과 해군 전함의 현대화된 기술로 인해 가능했다고 보고했음.

코롤레프는 최근 핵 전략미사일인 ‘블라디미르 모나흐(Vladimir Monomakh)’와 ‘알렉산더 넵스키(Alexander Nevskiy)’, 대형 잠수함인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와 ‘로스토프나도누(Rostov-na-Don)’ 그리고 ‘스타리이 오스콜(Stary Oskol)’, 마지막으로 소형 로켓 함정이 전쟁준비 태세에 돌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arctic-info.ru/news/22-04-2016/vmf-narastil-gryppirovki-voennih-korablei-v-arktike-do-100>)

• 러시아 북극해 개발 국가위원회, 북극해에서 단일화된 운수-물류 운영체제 건설에 대한 논의 착수 (2016.4.19)

러시아 북극해에서 단일화된 운수-물류 운영체제 건설을 연구할 목적으로 북극해 개발 국가위원회의 과학-전문가 및 기업 이사회 공동회의가 금일 개최되었음.

공동회의는 북극해와 남극해 국제협력분야 러시아 대표인 아르투르 칠링가로프(Artur Chilingarov)와 ‘델로’사의 대표인 세르게이 쉬쉬카레프(Sergey Shishkarev)가 공동의장의 자격으로 진행했음. 또한,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천연자원부,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도자들 그리고 러시아 주정부가 공동으로 러시아 정부에 북극해 지역에서 단일화된 운수-물류 운영체제 건설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음. 과학-전문가 및 기업 이사회가 작성한 제안서는 곧 있을 북극해 개발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임.

한편 북극해 개발 국가위원회는 북극에서의 사회-경제 문제, 교통과 환경 그리고 국제협력과 민족의 안전보장을 위해 연방 및 지역 정부와 기타 정부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곳임. 국가위원회 의장은 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로고진(Dmitry Rogozin)이며, 2015년 3월 러시아 대통령령에 의해 조직되었음. 북극해 개발 국가위원회에는 연방 정부 지도자들, 북극해 지역에 포함된 러시아 각 주의 주지사들, 러시아내 러시아 대통령 권한대행자들, 안전위원회 지도부, 대통령 행정기관, 그 외의 국가기관들 그리고 과학-사회 기구들이 포함되어 있음.

(<http://www.arctic-info.ru/news/19-04-2016/eksperti-goskomissii-obsyjdaut-sozdanie-edinogo-transportno-logisticskogo-operatora-v-arktike>)

북극국가 정책

미국

• 미국 Jewell 내무장관, 북극 기후난민 발생 경고 (2016.4.28)

캐나다 환경부 장관 Catherine McKenna와 미국 내무장관 Sally Jewell이 만나 국립공원, 이동성 종 그리고 기후변화와 북극 적응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했음.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McKenna 장관은 북극의 빠른 온난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협력과 대화라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음.

이에 비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Jewell 장관은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으며, 일부 북극 마을을 이주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음. 아울러 그녀는 “파리협약을 이행한다면 기온 상승과 일부 영향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변화가 이미 빠르게 진행 중이며 결국 기후난민이 생길 것”이라며 경고했음.

캐나다의 기온은 1948년 이후 평균적으로 섭씨 1.3도 상승했고, 일부 북극지역의 기온은 이의 2배 이상 상승했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건물과 도로가 망가지고 있고, 해빙이 사라져 폭풍에 의한 해안 침식도 심각해지고 있음. 또한, 자연환경의 변화로 동물행동에도 변화가 생겨 원주민들의 사냥활동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음. 이에 따라, 누나부트 준주 Tuktoyaktuk 마을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마을 이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음.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us-secretary-warns-of-arctic-climate-refugees-in-meeting-with-mckenna/article29790763/>)

• 미국 해상교통시스템위원회, 북극 인프라 구축계획에 관한 보고서 발간 (2016.5.9)

미국 해상교통시스템위원회는 수로 관리, 물리적 인프라, 정보 인프라, 대응 서비스 그리고 선박 운영 등과 관련된 43개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A Ten-Year Prioritization of Infrastructure Needs in the U.S. Arctic”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했음.

(<http://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us-details-arctic-infrastructure-needs>)

북극국가 정책

■ ■ 덴마크

- 덴마크 Jensen 외무장관,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합적인 EU 북극정책' 환영 (2016.4.28)

덴마크 외무장관 Kristian Jensen은 유럽연합이 북극 거주민과 협력하여 북극을 보호·보존하며, 지속 가능하게 자원을 개발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통합적인 EU 북극정책(An Integrated EU Policy for the Arctic)'을 도입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음.

특히 유럽연합의 새로운 북극정책에 지속 가능한 개발, 북극 환경과 기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통신장비와 위성의 이용과 같은 덴마크(그린란드와 페로 제도 포함)의 주요 북극 정책이 포함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유럽연합위원회를 도와 이번 정책이 북극에서 특정한 조치, 프로젝트 그리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http://cphpost.dk/news/denmark-praises-eus-arctic-agreement.html>)

북극국가 정책

중국

•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정부, 북극해에서의 3국 협력에 관한 회담 개최 (2016.4.25)

4월 28일에 서울에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3국이 북극해에서의 협력에 관한 첫 번째 회담을 가질 계획임.

이번 회담에는 중국 외교부 조법사 부장인 마신민, 일본외무성 북극 담당대사 카즈코 시라이시, 한국 외교부 북극 대사 김찬우 그리고 이외 다른 국가기관 인사들과 3국의 연구센터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임. 회담 참석자들은 북극해 지역에서의 상호 활동과 정치에 관한 정보, 북극해에서 3국 간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임.

북극해에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3국 간 상호협력에 대한 제안은 2015년 11월에 있었던 3국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보였음. 3국은 현재 모두 북극이사회의 옵서버의 지위를 얻은 상태임.

(<http://www.arctic-info.ru/news/25-04-2016/kitai—aponia-i-ujnaa-korea-provedyt-raynd-peregovorov-po-arktike>)

• 중국 교통운수부, 캐나다 북서항로를 이용한 화물 수송 계획 발표 (2016.4.20)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은 북서항로를 운항할 계획을 갖고 있는 중국 선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서 항로의 해도와 해빙 그리고 기상 등의 운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65페이지 분량의 '중국어 북극항해지침서(북서항로)'를 발간했음.

당 지침서는 2014년에 캐나다 화물선 누나비크 호가 퀘벡주에서 중국까지 단독으로 첫 항해에 성공하면서 파나마 운하를 통해 운항했을 때보다 이동거리를 40%나 줄일 수 있었던 점에 주목했음. 하지만 인프라 부재와 북극항해에 수반되는 여러 불확실한 요소로 인해 수송시간은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world/china-reveals-plans-to-ship-cargo-across-canadas-northwest-passage/article29691054/>)

북극국가 정책

● 일본

• 북서태평양 조사 포경에 대한 신 계획, 올해 11월에 IWC에 제출 예정 (2016.4.23)

일본 정부는 북서 태평양에서 실시 중인 조사 포경 계획을 2017년도부터 재검토할 예정임.

이를 위해, 남극해 조사 포경에 대해 중지를 명령한 2014년 3월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을 근거로 포획 범위를 재검토하고 조사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계획임. 그리고 구체적인 포획 수를 결정한 후 올해 11월에 신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제출할 것임.

일본은 그간 북서 태평양과 남극해에서 조사 포경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14년의 ICJ 판결로 인해 남극해 조사 포경을 잠시 중단하다, 작년 12월부터 포획 범위를 약 3분의 1로 줄인 채 조사 포경을 재개했음.

당시 ICJ 판결에는 북서 태평양에서의 조사 포경에 대한 중지 명령은 없었지만, 다른 조사 포경에도 이 판결의 내용을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본은 2014년도부터 포획 범위를 줄였었음.

(<http://dd.hokkaido-np.co.jp/news/economy/economy/1-0262587.html>)

• 일본 문부과학성, 남극지역 관측사업에 대한 공모 실시 (2016.5.13)

일본 문부과학성은 남극지역관측 통합추진본부가 2015년 11월에 수립한 남극지역 관측 제9기 6개년 계획에 따라, 남극지역 관측사업 중 기본 관측 분야의 해양물리·화학에 관한 관측 계획 공모를 실시했음.

구체적으로 이는 남극에서 수심 3,000m 이하의 수온과 염분의 동태를 감시한 후 그 조사연구결과 데이터를 국내·외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해수면 부근이나 국제 공동 관측점을 설치하여 남극 저층수에 대한 관측망 강화를 도모하는 것임.

연간 4,700만 엔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측 조사 실시 기간은 남극지역 관측 제9기 6개년 계획 기간인 2016-2022년이지만, 매년 평가와 확인을 거쳐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을 갱신할 예정임.

(http://www.mext.go.jp/b_menu/boshu/detail/1369394.htm)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 열악한 인터넷 접속 환경, 캐나다 누나부트 준주에서 사업하는데 장애 (2016.4.25)

높은 인터넷 이용료와 느린 속도가 캐나다 누나부트 준주(Nunavut)에서 사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실제로 누나부트 준주의 주민들은 하나 또는 여러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위성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료와 접속 속도는 마을마다 천차만별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세계에서 캐나다인들이 사업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신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4월 28일까지 Gatineau에서 열리는 캐나다 라디오-TV 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 청문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이번 청문회에는 재계, 비영리단체, 지방정부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 9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게 될 것임.

Atiigo Media사의 Romito 사장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료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받는데도 매달 1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120기가 바이트 이용제한을 넘게 되면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임.

(<http://www.theglobeandmail.com/report-on-business/small-business/sb-managing/bare-minimum-1000-a-month-internet-services-hobble-nunavut-businesses/article29745729/>)

• 세계 유일의 원자력 컨테이너 쇄빙선 ‘세브모르푸티’, 보수작업 이후 10년 만에 재 출항 (2016.4.29)

세계 유일의 원자력 컨테이너 쇄빙선 ‘세브모르푸티(Sevmorputi)’가 보수작업 이후 10년 만에 노보시비르스크의 카텔나이 섬으로의 첫 항해를 앞두고 무르만스크 상업 항구에서 적재 작업을 시작함.

‘세브모르푸티’는 5500톤의 여러 화물을 실은 채 5월 5일 출항할 예정이며, 카텔나이 섬까지는 7-8일 정도 소요 되고, 귀환할 때까지 총 항해일정은 3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 ‘세브모르푸티’는 원자력 선박인 ‘야말’의 쇄빙 시설을 갖추고 항해할 것임.

‘세브모르푸티’는 원자력 장치를 갖춘 세계 유일의 쇄빙 운송선박이기도 함. 이 선박은 1m의 얼음을 깨고 운항할 수 있으며, 뱃전에는 300톤의 바지선 74척을 싣거나, 20피트 컨테이너 1328개를 실을 수 있음.

‘세브모르푸티’는 2005년에 마지막 항해를 한 후 2012년에 폐기가 결정되었으나, 2013년 말 ‘로사토플로트(Rosatomflot)’가 ‘세브모르푸티’의 보수에 관한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이후 보수작업과 원자력 장치의 사용기한 연장 및 핵연료 착화물 적재를 위해 1년 반의 기간을 보냈음.

(http://www.arctic-info.ru/news/29-04-2016/atomnii-konteinerovoz—sevmorpyt_--vpervie-za-10-let-otpravitsa-v-reis)

• 러시아 사베타 항, 2015년도에 화물량 57만 톤 처리하며 활약 중 (2016.4.28)

지난 2015년에 야말-네네크 자치구 사베타 항 검문소를 통과한 화물의 수는 57만 톤을 넘었고, 올 해도 화물 수송량은 증가하리라 전망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8월에 개항된 사베타 항의 검문소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우랄 검문소장인 바체슬라브 골로스코코프(Vyacheslav Goloskokov)에 따르면, 현재 사베타 항에는 야말 LNG 공장 건설을 위한 대형 화물과 우랄·시베리아 지역의 시설 건설을 위한 대형화물의 환적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실 사베타 항의 개발 문제는 작년 ‘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SPIEF-2015)’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되었고, 당시 지역 기업들은 항구와 야말 LNG 프로젝트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해 100개의 수입대체 제품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음.

또한, 사베타 항 건설 시 우랄 기업들은 건설용 화강암, 금속 압연제, 다양한 크기의 관 그리고 선로와 침목 제공을 약속했으며, 이보다 앞서 중국 칭다오에서 LNG 생산을 위한 첫 번째 설비를 보내오기도 했음.

사베타 항은 카라 해(Kara sea)의 오비 만(Gulf of Ob) 서쪽 해안지역에 있는 북극 항구로, 야말 LNG 프로젝트에 따라 야말에서 서-탐베이스코예 가스응축물 산지의 탄화수소를 서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환적하기 위해 건설되었음.

(<http://www.arctic-info.ru/news/28-04-2016/v-2015-gody-cerez-port-sabetta-proslo-bolee-570-tis-tonn-gryzov>)

• 심화되는 주요국의 북극해에서의 자원 쟁탈전 (2016.4.21)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자원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는 북극해를 둘러싸고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지난, 4월 19-21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러시아 등 10개국이 참가한 북극해 어업에 관한 실무자급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음.

우선 회의 개최를 주도한 미국은 북극해에 서식 중인 어류 개체 수를 조사하는 사업과 어획량 관리를 위한 국제기관 설치를 제안했음. 상업 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북극해에서 어업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빙역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임. 하계의 해빙역 감소로 인해 선박의 이동이 가능한 해역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햇빛이 바다 속으로 투과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되었음. 따라서 어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증가하여 연어와 대구 등이 북극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북극해에서 어류의 남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한 것임.

또한, 미국은 작년 여름에 북극해에서의 원유 굴착을 승인했고, 가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방문해 연안 경비대의 쇄빙선 수를 충원할 의사를 표명했음.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와 광물 자원 채굴을 위해 2015년 8월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대륙붕 연장을 신청했으며, 이 요청이 인정받으면 독점적으로 해저자원을 채굴할 수 있게 됨. 또한, 러시아는 현재 약 40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4월 초순에 신규 쇄빙선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했음.

한편, 중국은 북극권 관련 연구 센터를 개설하고 쇄빙선을 파견했음.

마지막으로 일본도 작년 10월에 '북극 정책'을 수립하고 관측선과 수중 탐사기 등의 개발을 추진 중임. 일본의 민간 기업인 닛키(日揮)와 지요다 화공건설(千代田化工建設)은 러시아 북부의 Yamal 반도에서 프랑스의 Technip와 함께 LNG 플랜트를 건설 중이며, Mitsui 상선은 2018년까지 러시아 북부, 유럽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북극해 항로 정기운항을 통해 LNG를 수송할 계획임.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S12H16_Y6A410C1SHA000/)

• Shell 사 등 석유업체들, 미국 북극해에서 시추권 포기 (2016.5.10)

환경보전단체 Oceana가 최근 정보 공개법에 의거해 내무부 기록물을 열람한 결과, Shell 사, ConocoPhillips 사 등 석유회사들이 미국 북극해에서의 시추권을 포기한 사실이 밝혀졌음.

지난 2008년, 미국 정부가 진행한 시추권 입찰을 통해 임대된 구역의 80%에 해당하는 220만 에이커가 반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저유가, 높은 탐사비용 그리고 환경 리스크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Shell 사와 ConocoPhillips 사의 경우, 5월 1일 이전까지 추크치 해 광구 시추권을 반납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연간 임대료를 절약하게 되었음.

다만 Shell 사는 추크치 해와 주변 바다에서의 274개 광구 시추권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시추한 탐사광구에 대해서는 임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음.

ConocoPhillips 사는 지난 4월 26일, 추크치 해의 61개 광구에 대한 임대를 중단했고, 임대기간 연장을 위해 시작된 미국 Interior Board of Land Appeals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음.

한편 Statoil 사 역시 추크치 해의 16개 광구를 포기했고, Iona Energy 사는 지난 3월 31일에 1개 광구에 대한 운영권을, 그리고 EniSpA 사는 지난 4월 28일에 4개 광구에 대한 운영권을 반납했음.

(<http://www.theglobeandmail.com/report-on-business/industry-news/energy-and-resources/shell-and-conocophillips-drop-drilling-rights-in-us-arctic-waters/article29959070/>)

(<http://www.nytimes.com/aponline/2016/05/10/us/ap-us-arctic-offshore-drilling.html>)

• 러시아 ‘수르구트네프테가스’ 사, 올해부터 야쿠티야 매장지에서의 석유 산출량 4% 증산 (2016.5.11)

러시아의 ‘수르구트네프테가스’ 사는 올해부터 야쿠티야 매장지에서 석유 284만 2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은 작년보다 생산량이 4% 이상 증가한 것임.

지난 2016년의 4개월간 수르구트네프테가스 사는 석유 약 2030만 4400톤과 가스 32억 7420만^m를 생산했음. 이 회사의 시추 작업은 올해 초부터 탐사시추 6만 5천100미터를 포함하여 광석 144만 800미터 규모에서 이루어졌음.

(<http://www.arctic-info.ru/news/11-05-2016/-syrgytneftegaz—yvelicil-dobicy-nefti-v-akytii-na-4>)

• ‘야말 LNG’ 사, 중국 수출입 은행과 중국 개발은행으로부터 용자 확보 (2016.4.29)

‘야말 LNG’ 사는 중국 수출입은행과 중국 개발은행으로부터 15년간 각기 93억 유로와 98억 위안을 제공받는다라는 용자 계약에 서명함.

‘야말 LNG’ 사 운영진은 재정확보를 위해 이미 러시아 국가복지기금(Russian National Welfare Fund)으로부터 1,500만 루블을 받았고, 스베르뱅크(Sberbank)와 가스프롬뱅크(Gazprombank)로부터도 15년간 360만 유로 규모의 용자를 받기로 했음.

러시아 국가복지기금의 자금 제공, 러시아 은행들과의 용자 계약 그리고 중국 은행들과의 계약은 야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야말 LNG’ 사 대표 예브게니 코트(Evgeny Kot)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될 것이며, 중국 은행들과의 계약 체결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

작년 12월 중순에 ‘노바텍(Novatek)’은 자신이 보유한 ‘야말 LNG’ 사의 지분 9.9%를 15년간 용자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중국의 ‘실크로드기금’에게 팔았는데, 이로 인해 야말 프로젝트의 지분구조가 바뀌게 되었음. 즉 러시아의 ‘노바텍’이 50.1%의 지분을, 프랑스의 ‘토탈’ 사와 중국의 ‘중국석유(CNPC)’가 각각 20%의 지분을,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크로드 기금이 9.9%의 지분을 소유하게 됨.

‘야말 LNG’사는 남-탐베이스코에 매장지 기준으로 연간 16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LNG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임. LNG 생산은 2017년에 시작되어, 최소 35년 동안 지속될 것임.

(<http://www.arctic-info.ru/news/29-04-2016/-amal-spg—polycit-kredit-na-9-3-mlrd-evro-i-9-8-mlrd-uanei-ot-kitaiskih-bankov>)

• ‘야말 석유-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 화상회의, Vostock Capital 사 주관으로 개최 (2016.4.20)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오후 1시, Vostock Capital 사 주관으로 무료 화상회의인 ‘야말 석유-가스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 개최되어, 지역 석유가스 분야에 대한 러시아의 계획과 각 나라들의 계획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투자전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음.

이번 화상회의의 주요 안건은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에서 야말 지역의 위치, 프로젝트의 실행, 야말-네네츠 자치구 석유-가스 분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러시아 석유-가스 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중단의 문제와 채굴 경험 그리고 북극 환경에서 사용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이번 화상회의는 Statoil 사의 수석분석전문가인 이반 메트리킨(Ivan Metrikin)과 드미트리 툴루포프(Dmitry Tulupov) 그리고 러시아 국제교류 위원회에 속한 북극 문제 전문가가 주도할 예정임.

현재 러시아 천연가스의 약 85%는 야말-네네츠 자치구에서 생산되고 있음. 이 외에도 야말-네네츠 자치구에는 러시아 석유의 70%, 세계 천연가스의 22%가 매장되어 있음. 야말 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 잠재력은 약 8조 루블에 달함.

(http://www.arctic-info.ru/news/20-04-2016/amal_skii-vebinar—investproekti-neftegazovoi-otrasli-amala—proidet-22-aprela)

• ‘러시아와 구 소련국가의 대륙붕 개발’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모스크바에서 개최 (2016.5.12)

5월 20일에 ‘러시아와 구 소련국가의 대륙붕 개발’이라는 제목의 국제 컨퍼런스가 모스크바 ‘St. Regis Nikolskaya’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는 현재 러시아와 구 소련국가들의 재정·경제 상황 하에서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가스의 잠재력과 탐사 전략을 논의하며, 대륙붕 매장지 개발을 위한 현대적 기술과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매일 평균 150여 명이 넘는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연방과 지방정부의 기관장들, 러시아 및 외국 회사의 운영진들, 학술기관의 연구자들, 대륙붕 매장지 개발에 이용되는 기계와 원료공급자들 그리고 대륙붕 개발을 위한 해안 교통과 가공 인프라 제공자로 구성되어 있음.

올해 발제자는 해양 분야 엔지니어링 및 기술 개발부장인 바딤 페트렌코(Vadim Petrenko) (‘가즈프롬’의 가스, 가스 응축 그리고 석유 채굴국), ‘가즈프롬네프티-사할린’ 생산 공급부장인 알렉세이 파데예프(Alexey Fadeev), 러시아 정부 산하 에너지 분석센터 전략부장인 알렉산더 쿠르딘(Alexander Kurdin) 그리고 ‘체르노모르네프테가스(Chornomornerftegaz)’의 대표인 이고르 샤바노프(Igor Shabanov)임.

이번 컨퍼런스는 ‘현 정치-경제 상황이 이 분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016-17년에 러시아에 진출할 해외 프로젝트들의 실현 전망’ 그리고 ‘저유가 및 낮은 가스비라는 현실에서 러시아 대륙붕 개발의 경제적 합목적성과 북극해 프로젝트’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임.

(http://www.arctic-info.ru/news/12-05-2016/-osvoenie-sel_fa-rossii-i-sng—obsydat-v-moskve)

• 아연-납 광석 연구, 2017년 봄부터 러시아 노바야제믈라 섬에서 수행될 예정 (2016.4.18)

러시아의 '기프로니켈(Gipronikel) 연구소'는 노바야제믈라 섬에 있는 파블로프(Pavlov) 매장지에서 아연-납광석의 미네랄공정 연구가 수행될 것을 시사함.

이번 연구는 북극해에서 가장 큰 선광공장(選鑛工場) 건설을 위한 설계 문서 준비에 필요한 것이며, 작업 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이 될 것임.

국영법인 '로사톰'이 보유한 원료들 중 파블로프 매장지의 광석은 아연 248만 톤 이상, 납 54만 9천 톤 그리고 은 1천 194톤을 차지함.

'기프로니켈(Gipronikel) 연구소'는 야금 연구를 위한 정광 생산과 함께 시제품 생산을 시도할 것이며, 정광 작업을 거친 아연과 납의 상품화, 그리고 파블로프 매장지의 광석을 고르는 선광공장 건설에 대한 기술적 규정을 만들 것임.

파블로프 매장지의 산업화 준비를 위한 다음 단계는 공학적 탐사 작업을 위한 복합단지 건설과 러시아 최북단에 아연-납광석 채굴과 가공 공장을 설계하는 것임.

선광공장의 기본 시설에는 노천광에서의 채굴작업을 위한 복합 단지, 한해 350만 톤의 광석을 생산하는 선광공장, 독립적인 동력 공급 복합단지, 45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근로자 마을 그리고 관공서와 의료-생활 단지가 들어설 것임.

베즈만나야(Bezymiannaia) 하구 북쪽 연안에는 항만과 항만 연안의 경제시설이 들어설 것임. 탐사작업은 2016-17년에 실시될 것이며, 2018년에 완성된 계획서를 '중앙국가감정위원회(GGE)'에 송부할 것임.

(<http://www.arctic-info.ru/news/18-04-2016/issledovania-svincovo-cinkovih-ryd-na-novoi-zemle-provedyt-k-vesne-2017-goda>)

북극환경 및 생태계

• 북극의 기후온난화, 북극 조류의 개체 수 감소에 영향 (2016.5.13)

최근 Science지에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북극의 기후온난화가 시베리아-서부 아프리카를 왕래하는 붉은가슴도요새(red knot)의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

지난 33년간의 위성자료와 Gdansk Bay에서 포획되어 측정된 1,990여 마리 붉은가슴도요새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그들의 시베리아 번식지에서 얼음이 더 빠른 시기에 녹고 있고, 이에 따라 그들의 부화 시기도 먹이가 가장 풍부한 시기보다 뒤쳐지고 있음. 또한, 먹이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 때문에 얼음이 더 빨리 녹았던 여름에 태어난 붉은가슴도요새의 몸집과 부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비교적 작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음. 한편 이는 다시 어린 새의 치사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설령 붉은가슴도요새가 겨울 서식지인 서부 아프리카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짧은 부리 때문에 갯벌에 묻혀 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경험이 부족한 어린 새들에게 더 큰 시련이 되었기 때문임.

연구진에 따르면, 북극 지역에서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동물들이 "body shrinkage"라는 과정을 통해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동성 물새의 개체 수 감소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데 붉은가슴도요새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http://news.discovery.com/animals/arctic-bird-shrinking-as-planet-warms-160513.htm>)

• 지구 온난화, 북극해에서 여름 식물의 숫자와 색 변화에도 영향 (2016.5.6)

최근 5년간 북극해에서 여름 식물들의 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북극을 덮고 있는 식물의 색도 녹색에서 갈색과 회색으로 변하고 있음.

노르웨이 과학 인터넷 포털인 forskning.no는 미국 연구기관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지구의 전반적인 온난화를 들었음. 또한, 최근 북극에서 자라는 식물의 대부분이 갈색으로 변했고, 작년엔 비해 봄에 피는 잎의 숫자도 현저히 줄었다고 밝힘.

노르웨이 환경-기후 연구센터에 따르면, 30년 전에는 극지의 기후 온난화로 캐나다, 노르웨이, 러시아 극지대와 그린란드 섬의 녹색 식물 수가 현저하게 증가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지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학자들은 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로 현재 극지의 기후가 점점 더 습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즉, 작년에 비해 극지에 오랜 기간 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물성장 시기가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것임.

학자들은 또한 극지 식물이 겪는 이런 거대한 변화가 영구동토층을 녹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온실 효과와 기후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많은 양의 탄화수소 배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함.

(http://www.arctic-info.ru/news/06-05-2016/iz-za-global_nogo-poteplenia-arktika-menaet-cvet)

기타

• 다국적 난민 밀입국 조직, 핀란드 북극 국경지역에서 발각 (2016.5.9)

핀란드 국경에서 발각된 다국적 난민 밀입국 조직이 2곳의 핀란드 북극지역을 통해 사람들을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특히, 난민 밀입국 조직 소속 16명은 금년 1-2월에 러시아를 통해 핀란드로 최소 45명의 인도 출신 국적자를 밀입국 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각 사람에게 약 1만 7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들은 스웨덴, 네덜란드, 인도, 파키스탄 국적이며, 이 중 핀란드 국적의 조직원 3명은 크게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석방되었고 나머지 13명만 구금되었음.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도에 핀란드 북극지역 국경에서 난민 신청자가 700명도 안 되었는데, 금년 첫 두 달에만 갑자기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함.

한편 난민 밀입국 조직은 노르웨이 북극지역을 통해서도 밀입국 시도를 했지만, 현재 노르웨이-러시아 국경은 봉쇄되었고, 지난 3월 22일, 러시아와 핀란드는 북극 국경에 대한 통제를 6개월 동안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이제는 북극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수사 관계자가 말할 정도임.

(<http://www.nytimes.com/aponline/2016/05/09/world/europe/ap-eu-finland-migrants-human-smuggling.html>)

• 러시아 '로사톰' 사, 무르만스크 주정부와 특수 위험폐기물 이용에 관한 추가 계약에 서명 (2016.5.12)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사와 무르만스크 주정부는 무르만스크에서 개최된 '북극해의 원자력 : 환경과 안전' 포럼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특수 위험폐기물 이용에 관한 협력을 약속하는 추가 계약에 서명했음.

구체적으로 추가 협정은 '로사톰'사의 인프라 기반시설 위에 특수 위험폐기물의 저장, 재활용, 독성 제거를 위한 산업 복합단지 건설과 사용에 대한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 산업단지는 극지대와 다른 지역에 만들어질 예정임.

무르만스크 부주지사인 예브게니 니코라(Evgeny Nikora)는 극지 행정당국과 로사톰 사와의 상호 협력이 환경과 안전 분야의 활동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무르만스크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콜스카야 원자력발전소(KNPP) 동력장치 №1의 사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힘.

(http://www.arctic-info.ru/news/12-05-2016/rosatom-i-myrmanskaa-oblast_-podpisali-dopsoglasenie-ob-ytilizacii-othodov)

• 이누이트 단체, 살해·실종 원주민 여성에 대한 정부 조사에 앞서 한 목소리로 원주민 이슈 수용을 압박 중 (2016.5.3)

살해·실종 원주민 여성에 대한 조사를 곧 실시할 캐나다 정부를 향해, 이누이트 관련 단체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이누이트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캐나다 원주민은 First Nations, Metis 그리고 Inuit(이누이트)로 나뉘며, 이중 이누이트는 캐나다 원주민 인구 전체의 4%를 구성하는 소수민족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임.

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14년에 살해된 이누이트 여성들의 숫자는 3명이었는데, 이는 동년도에 살해된 모든 원주민 여성 숫자의 10%에 해당됨. 또한, Globe and Mail 신문사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최소 47명의 이누이트 여성들이 살해됐으며, 2000년 이후로 최소 6명이 실종됐음.

사실 주로 캐나다 북극 4개 지역(Inuvialuit, Nunavut, Nunavik, Nunatsiavut)에 거주하는 이누이트는 외딴 마을, 더 추운 기후와 좁은 집, 식품 공급 문제 그리고 여성 쉼터를 포함한 여러 복지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원주민들에 비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캐나다 이누이트 여성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Pauktuutit Inuit Women of Canada는 조사 전에 실시된 자문회의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누이트들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범 원주민 그룹 내 소수집단인 이누이트의 이슈들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음.

한편 Inuit Tapiriit Kanatami(ITK)와 Tungasuvvingat Inuit는 지난 달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캐나다 연방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이누이트들이 여성폭력에 대한 사법제도, 아동복지시스템, 식민지의 역사, 역량 부족 그리고 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했음. 또한 그들은 현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이누이트의 문화와 언어, 역사 그리고 가치가 존중되며, 조사과정이 끝난 후에도 치유와 관련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ahead-of-missing-and-murdered-inquiry-inuit-seek-to-have-voices-heard/article29829954/>)

• 중국 여행사, 전세 선박을 이용한 북극점 크루즈 여행상품 출시 (2016.5.12)

전문 여행서비스 제공업체 tuniu(途牛)는 중국 최초의 극지 전문 여행사 tripolers(极之美极地旅行机构)와의 협력 하에 독자적으로 선박을 임대하여 북극점을 여행하는 크루즈 상품을 출시했음.

올해 7월 20일에 출발할 예정인 이번 북극점 상품은 15-16일 동안 진행되며, 승객들에게 헬기투어, 북극의 섬 방문, 북극점 촬영, 극지에 대한 강좌, 해상 혼례 그리고 청소년 캠프 등의 테마 활동을 제공할 계획임.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북극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평균 1,000명으로 중국 관광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극점 관광은 7,8월 동안 쇄빙선을 이용한 관광이 일반적임.

이번 북극점 여행은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최대 마력의 쇄빙선인 빅토리 50년(50 Years of Victory)호를 이용해 진행될 예정이며, 바렌츠 해를 통과해 제물랴프란차이오시파 제도를 지나 최종적으로 북극점에 도달함 계획임.

(<http://www.dotour.cn/article/21838.html>)

• 중국의 '863계획' 과학연구성과 보고회, '남극 크릴새우' 등에 대해 발표 (2016.5.)

지난 5월 17일, 중국의 첨단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1986년에 수립된 863계획의 과학연구성과 보고회와 제1회 남극 크릴새우 기름의 세계브랜드 문화행사가 우한에서 개최되었음. 당 보고회에서는 남극 크릴새우가 극지 생태계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과 실제 식생활으로의 응용 등에 관한 내용이 발표됐음.

중국 국가 위생 및 계획생육 위원회(国家卫计委)는 지난 2014년에 남극 크릴새우 기름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승인했으며, 라오위(辽渔) 그룹은 남극 크릴새우 프로젝트를 지난 6년간 10억 위안을 들여 추진하여 현재 조업, R&D, 생산 그리고 판매의 일체화된 산업사슬을 구축하고 있음.

1960년대 소련을 필두로 남극 크릴새우의 대규모 상업적 조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일본, 칠레, 한국, 노르웨이 그리고 중국 등 22개국이 상업적 조업활동에 참여해, 2014년까지 남극 크릴새우의 조업량은 813만 톤에 이르게 되었음.

최근 남극 크릴새우의 주요 조업국은 노르웨이와 중국이며, 특히 중국은 남극 크릴새우 산업을 통해 중국의 어업자원 확대와 중국의 수산물 생산 및 가공업 발전을 꾀하고 있음.

(http://news.ifeng.com/a/20160517/48787145_0.shtml)

• 칠레 외교부 장관, 남극 과학기술 관련 중국-칠레 협력관계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 (2016.5.24)

칠레 외교부 장관 에랄도 무노스(Heraldo Munoz)는 지난 5월 23일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 39회 남극조약 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남극 과학기술 관련 칠레와 중국의 협력관계가 양호하다고 밝혔음.

이와 함께 무노스 외교부 장관은 칠레와 중국이 남극과학조사와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http://world.huanqiu.com/hot/2016-05/8968732.html?pkv>)

• 호주 정부, 대중에 남극 쇄빙선 명칭 공모 (2016.4.27)

호주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 건조 계획 중에 있는 쇄빙선의 이름을 명칭 공모를 통해 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환경부 장관 Greg Hunt는 최근 영국에서 'Boaty McBoatFace'라는 이름이 쇄빙선 명칭 공모 결과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해 구설수에 오른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호주 남극 전략과 향후 20년 행동계획에 따라, 호주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2억 5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남극기지의 물류지원과 과학적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이중 5500만 달러는 인프라 예산으로 책정하고, 2억 달러는 호주 남극 프로그램의 지속을 위한 기금에 투입할 예정임. 또한, 가장 많은 예산을 최첨단 연구 및 기지지원 쇄빙선의 건조에 투입하며, 1년 이내로 건조계약을 성사시키고 실제 작업에 착수하여 2021까지 진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지난 4월 초, 영국은 새로운 극지 연구선의 이름에 대한 인터넷 설문을 진행하여 'Boaty McBoatFace'라는 명칭이 124,109표를 얻어 2위인 'RRS Poppy-Mai'를 득표수 면에서 4배 이상의 큰 격차를 벌이며 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얻었음. 하지만 영국 과학부 장관은 이러한 설문 결과와는 관계없이 'David Attenborough'라고 짓기로 결정하여 대중의 지탄을 받았음.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apr/27/australian-government-to-avoid-boaty-mcboatface-situation-in-ship-naming-poll>)

• 다국적 남극 공룡 연구팀, 제임스 로스 섬에서 7100만년 된 공룡 화석 발견 (2016.5.5)

남극 공룡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구성된 12인의 다국적 연구팀이 제임스 로스 섬(James Ross Island) 지역에서 71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화석과 백악기 말에 살았던 조류화석을 발견했음.

발견된 화석은 현재 칠레에 있으며, Carnegie Museum of Natural History로 보내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http://www.abc.net.au/news/2016-05-05/antarctic-expedition-uncovers-71-million-year-old-fossils/7388486>)

• 국제남극패키지여행업자협회 설립 25주년 기념행사, 미국 뉴포트에서 성황리에 끝나 (2016.5.13)

사상 최대 인원인 1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국제남극패키지여행업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arctica Tour Operators, IAATO)의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5월 3-6일에 미국 뉴포트(Newport)에서 개최되었음.

정책 검토 세션에서 회원들은 야생동물이 많은 남극 연안지역에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으며,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매년 검토하여 기술발전과 규제 변경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침의 제·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해빙지역에서 소형선박 운영에 대한 지침, 표범물개 관찰에 대한 지침, 운영자들이 새로운 남극 사업을 고려할 때 Antarctic Treaty System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표 그리고 Elephant Islands의 Point Wild을 위한 New Antarctic Treaty System 기준 등이 새로 채택되었고, 고래·새·바다표범 관찰에 대한 지침은 개정되었음.

덧붙여, 남극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비하여 Tourism Growth Workshop을 2016년 9월에 개최하기로 합의 했으며, Bob Simpson이 IAATO 집행위원장으로 재임명되었음.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South Georgia섬 방문객 관리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됐으며, IAATO, South Georgia 정부 그리고 초대 전문가들이 상호 정보와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음.

(http://en.mercopress.com/2016/05/13/iaato-celebrates-25th-anniversary-with-record-number-of-participants-bob-simpson-reappointe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daily)

• 중국판 '꽃보다 누나', 남극 편 방영 중 (2016.5.27)

한국 TVN과 협력하여 제작 중인 '화양제제(花样姐姐)2 - 중국판 '꽃보다 누나'는 '꽃보다 누나, 남극 정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연진들의 남극 여행 과정을 방영하고 있음.

이번 남극 여행에서 '화양제제'팀은 배편을 이용해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발하여 드레이크 해협을 거쳐 남극에 도착했음. 특히 지난 5월 20일 방영분에서는 출연진들이 남극대륙에 도착하여 남극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모습도 소개되었음.

큰 파급력을 지닌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극 여행기가 다루어지면서, 최근 중국에는 남극 여행상품에 대한 광고와 기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남극 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http://ent.ifeng.com/a/20160527/42626752_0.shtml)

• 미국-북유럽 5개국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북극에 대한 관심 표명

지난 5월 13일, 미국,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정상들은 '미국-북유럽 5개국 정상회의(US-Nordic Leaders Summit)'를 통해, 1) 안보와 국방, 2) 이주와 난민, 3)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북극, 4) 일자리, 성장 그리고 무역, 5) 지구적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 이렇게 크게 5개 분야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북극' 분야 내 '북극'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북유럽 5개국 정상들은 북극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북극 지역에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원주민, 기후변화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 측면에서 이 지역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음에 공감했다. 정상들은 북극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이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포함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적 원리에 의해 공동 통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둘째, 미국과 북유럽 5개국 정상들은 북극 이사회 수립 20주년을 축하하며, 북극이사회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에 중점을 두면서도 이 지역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다루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상들은 앞으로도 우선순위에 맞추어 북극이사회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북극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셋째, 미국과 북유럽 5개국 정상들은 북극 지역에서의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국가 그리고 세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보존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적 기반 접근(ecosystem-based approach),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목표 부응, 그리고 자원개발과 같은 상업 활동 시에는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을 취할 것을 합의했다.

넷째, 미국과 북유럽 5개국 정상들은 토착 원주민(indigenous peoples)과 지역 거주민(local people)의 권리를 인정하며, 전통적(traditional)이며 고유한(local) 지식을 갖춘 이들이 북극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미국과 북유럽 5개국 정상들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내륙·민물 서식지에 과학에 기초를 둔 보호와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지역의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북극 거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북유럽 5개국 정상들은 북극 지역 안팎에서 북극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북극연구와 학제를 초월하는 과학을 강화하며, 고등교육기관과 사회 간 협력을 장려하고, 과학과 전통적(traditional)이며 고유한(local) 지식 간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들은 올해 9월에 미국에서 개최될 최초의 '북극과학 각료회의(Arctic Science Ministerial)'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이번 미국-북유럽 5개국 정상회의는 국제법적 원리에 기초한 북극 거버넌스, 북극이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지역적·국제적 공조, 북극 거주민의 권리와 지식 인식, 과학과 전통적(traditional)이며 고유한(local) 지식 모두를 활용해 북극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모색한 북극 지역 6개국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북극이사회 주요국가들의 공동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다가올 북극과학 각료회의의 등 앞으로의 행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수환 연구원